

대기업 협력업체 보건관리 현황

전경자(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대기업 협력업체 보건관리 현황

1. 우리나라 협력업체 현황¹⁾

1) 하도급의 증가 추세

197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 공업 중심의 조립공업이 성장함에 따라 수출산업과 기타 부분과의 이중적 경제구조가 일원화되면서 중소기업의 하도급의존비율이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자본의 개방이 국제적으로 심화·확산되면서 대기업은 전문화, 자동화되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동시에 하도급·계열화를 통한 중소기업과의 분업관계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사회적 분업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사회적 분업관계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의존 및 지배·종속적인 관계가 심화되었다.

도급거래는 국가 경제 구조의 균형있는 발전과 각 산업간 전문화 및 상호보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시책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어 85년에 42%를 차지하던 도급률이 93년 61.6%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도급 및 산업의 계열화는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표1> 300인 미만 중소기업중 하도급기업²⁾ 수 비율

연도	'75	'80	'83	'87	'93
비율 (%)	17.4	30.0	38.0	48.5	57.7

자료: 상공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년도.

2) 하도급의 개념

일반적으로 '하청'은 법률용어는 아니나, 도급, 계열화 또는 외주 등과 같은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급이란 발주기업(모기업)과 수급기업 사이에 성립되는 계약에 의한 주문생산거래를 말한다.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서는 제조·가공 또는 수리를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가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상호분업적 협력관계를 이루는 형태를 계열화로 규정하고 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3).

한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 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

1) 백도명의 6인(1997).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97 직업병 예방연구용역 보고서.

2) 하도급을 받기만 하거나, 하도급을 주고 받는 기업을 지칭.

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가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하도급거래라고 정하고 있다.

하도급의 형태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독점 대기업의 대규모 공장에서 하도급 노동자가 상품생산에 필요한 각종 부대작업 등의 간접부문과 부분공정을 주문받아 독점 대기업의 노동자와 함께 독점 대기업의 상품생산에 참여하는 구내(사내)하도급업체와, 자동차나 전자산업과 같이 부품생산이나 부분 공정처리를 하도급기업의 자체내 공장에서 생산·공급하는 외부하도급업체가 있다. 인력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단순노무인력만 제공하는 것과 장비·시설과 인력을 동시에 공급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나, 단순노무인력을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동부 산업안전국, 원하도급 실태조사결과, 1989)

하도급업체의 작업내용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기계조립, 용접, 절단, 도장, 샌드블라스트, 출하, 운반 등 단순기능을 요하거나 야외 작업, 단순육체작업으로서 열악함은 물론 유해·위험한 공정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조건에서는 수익성이 낮아서 원하도급업체에서는 작업을 기피하는 공정이 대부분이다(노동부 산업안전국, 원하도급 실태조사결과, 1989).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계약 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되는 한에서는 정상적 고용관계를 갖는 노동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기업의 하도급액 지급 체불로 하도급업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용기업은 하도급업자와 연대하여 임금 청산의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근기법 43). 또한 사용자는 하도급으로 사용한 노동자에 대해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근기법 46조). 노동법 상의 이 두 조항은 하도급근로자의 노동자 신분과 그를 고용한 하도급업자와 사용기업의 임금지불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하도급 구조 및 실태

소규모사업장들이 처하고 있는 취약한 경영기반, 연구·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자본의 영세성 그리고 낮은 임금수준, 종업원들의 높은 이직율로 인한 지속적인 고용인력 확보의 어려움, 열악한 작업환경조건 등의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사업장들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수의 약 88%, 전체 근로자수의 약 40% 가까이 분포하며 우리나라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고려할 때 소규모사업장들은 우리나라 경제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소규모사업장은 유희노동력을 흡수하여 노동비용을 감소, 원가절감, 다양한 생산품 생산을 위한 전문생산기술 제공 그리고 분업체제에 의한 부품조달 등을 가능하게 해주므로, 사회가 다양화될수록 요구되는 생산품목수가 증가하고 생산품의 구조가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속에서 대기업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전체 경제구조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하다. 실제로 소규모사업장들은 높은 자본력, 우세한 기술수준 등을 앞세운 대기업과 하도급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중·소 규모별 도급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하도급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업장이 전체 중소기업중에서 7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외부에서 하도급을 받아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가 전체 50인 사업장에서 58.46%에 해당하는 반면, 50인 이상의 중규모사업장 중에서는 50.2%에 이르고 있다. 소규모일수록 외부에서 하도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중·소 규모별 도급거래유형 (단위: 개소 %)

도급거래유형	총계	5-49인	50-299인
도급(하청)을 주기만 한다	11,572(14.7%) (100.0%)	10,416(14.6%) (90%)	1,156(15.5%) (10%)
도급(하청)을 받기만 한다	20,749(26.3%) (100.0%)	19,690(27.6%) (95%)	1,059(14.2%) (5%)
도급(하청)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24,443(31.04%) (100.0%)	21,759(30.5%) (89%)	2,684(36.0%) (11%)
도급(하청)거래관계가 없다	22,033(27.96%) (100.0%)	19,476(27.3%) (88%)	2,557(34.3%) (12%)
총계	78,797(100.0%)	71,341(100.0%)	7,456(100.0%)

자료: 『'95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단, 담배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제조업, 재생재료가공처리업과 종업원 300인 미만이라도 대기업 사업체는 제외)

중·소규모별 도급거래단계를 살펴보면, 도급관계를 받고 있는 총 44,958개소 중에서 대부분이 1차도급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1차도급단계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71.4%를 차지한 반면, 300인 미만 중규모사업장은 8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50인 미만 사업장이 1차도급단계에서 중규모사업장보다 비율이 적게 차지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사업장은 2차, 3차 그리고 4차까지 도급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지하는 비율도 300인 이상 규모보다 많았다. 즉, 소규모사업장의 자본이 취약하여 하도급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하도급관계에서도 중복도급거래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반복적인 재하도급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수익성 보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중·소규모별 도급거래단계(도급관계가 있는 사업장) (단위: 개소 %)

도급거래단계	총계	5-49인	50-299인
1차도급기업	32,638(71.9%) (100.0%)	29,486(71.4%) (90%)	3,152(86.1%) (10%)
2차도급기업	10,470(4.3%) (100.0%)	9,994(24.2%) (95%)	476(13.0%) (5%)
3차도급기업	1,726(0.039%) (100.0%)	1,693(4.1%) (98%)	33(0.9%) (2%)
4차도급기업	124(0.003%) (100.0%)	124(0.3%) (100%)	-
총계	44,958(100.0%)	41,297(100.0%)	3,661(100.0%)

자료: 『'95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단, 담배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제조업, 재생재료가공처리업과 종업원 300인 미만이라도 대기업 사업체는 제외)

중·소규모기업들이 하도급거래상 갖는 애로점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이 저렴한 납품단가, 수시발주, 대금결제기일 장기화, 납기단축 촉박, 지나친 품질요구 그리고 거래선변경 가능성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에 나타난 응답을 토대로 대기업의 납품단가인하, 납품일자 단축 요구, 그리고 재발주 보장 등 때문에 소규모기업은 대기업과 수직적 종속관계를 맺게되는 상황이 많으며, 이러한 관계는 소규모사업장의 순이익보장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개선에 대한 소규모사업장의 투자능력을 제약함으로써 소규모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은 지속되게 된다.

<표4> 중·소규모별 수급기업의 도급거래상 애로 (단위: 개소, %)

	총계	5-49인	50-99인
총계	42,324(100/100)	38,902(92/100)	3,422(8/100)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	13,036(30.8/100)	11,826(30.4/100)	1201(35.1/100)
인수증 교부일 장기화	2,835(6.7/100)	2,658(6.6/100)	2,361(6.9/100)
저렴한 납품단가	31,912(75.4/100)	29,449(75.5/100)	2,467(72.1/100)
대금결제기일 장기화	17,225(40.7/100)	16,261(41.8/100)	948(27.7/100)
수시발주	18,834(44.5/100)	17,156(44.1/100)	1,660(48.5/100)
납기단축 촉박	14,813(35.0/100)	13,266(34.1/100)	1,543(45.1/100)
거래선변경 가능성	9,777(23.1/100)	8,986(23.1/100)	777(22.7/100)
기타	1,185(2.8/100)	1,128(2.9/100)	51(1.5/100)

복수응답한 자료임

자료: 『'95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단, 담배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제조업, 재생재료가공처리업과 종업원 300인 미만이라도 대기업 사업체는 제외)

최재욱 등의 연구에 따르면, 도급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근로자 인력난으로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도급을 한다는 항목에 72.0%의 응답율을 보였으며, 기타 납품 기일에 맞추기 위해(66.6%), 작업장이 협소한 것과 같은 사업장 자체의 사정때문에(50.0%), 도급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에(43.3%)등의 순이었다. 또한 '도급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가 어려워 도급을 실시한다'라는 경우가 25.5%이었으며, '도급 공정에 대한 환경처의 규제가 심하여 도급을 실시한다'가 24.4%, '노동부의 해당 공정에 대한 규제가 심하여 도급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1.1%에 이르고 있어 환경처나 노동부의 규제 그리고 이에 따른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노무 관리의 어려움이 도급을 실시하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하도급을 통해서 개별기업은 인건비 절감, 생산수요 변화에의 대응, 단순기능 노동력 수요에 대한 대응, 계절적 시간적 업무 등 예상되는 업무량 변동에 대한 대응, 결원예의 대응, 정규직을 원하는 후보자의 선별과정, 고용안정 관련 법제화에 대한 대응, 노조에 대한 견제 등을 도모한다. (권혜자,1996)

2. 정부의 협력업체 보건관리정책³⁾

1) 제조업 업종별 재해율 조사 실시

노동부는 '94년부터 건설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던 재해율 조사(협력업체 재해 포함) 발표결과 산업재해예방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기업과 협력업체 공동 재해예방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97년부터 제조업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표5> 도급순위 100위 건설업체 재해감소 현황

'92	'94	'96
16,094명	6,743명	4,507명

조사대상 업종은 사업장 규모가 크고 다수의 협력업체를 포함하고 있는 자동차,조선,철강,정유,석유화학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하고 2차로 30대 그룹 전기,전자업종을 조사할 예정이며, '98년도부터 목재가구업, 가스업, 비철금속 제조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해율 산정방법은 모기업의 재해율에 내주협력업체(하도급업체, 소사장, 파견근로자 등 포함) 재해율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앞으로 외주 협력업체(모기업 의존율 50% 이상)까지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와 같이 업종별 재해율 조사를 제조업에까지 확대한 것은 우리 나라 전체 사

3)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안전과(1997). 내부자료

업장의 약 95%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재해의 약 54.8%가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재해율(1.40%)이 대기업 재해율(0.46%)의 3배에 이르고 있을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중.소 영세기업은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그룹사에 소속된 협력업체들의 안전관리 능력향상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의 경우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음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범상 의무이행에 대한 비용과 부담경감을 위해 유해.위험작업을 협력업체에 도급을 주면서도 안전관리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동일업종간 경쟁의식을 불러 일으켜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였다.

2) 표준안전관리비제도

노동부는 이밖에도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공동재해예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에 협력업체의 산재예방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표준안전관리비"제도를 건설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 확대키로 하였으며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증감폭을 현재의 가감 40%에서 가감 50%로 확대하여 개별기업의 재해예방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는 등 모기업과 협력업체 공동재해예방활동 활성화를 강력 추진키로 하였다.

3) 안전관리협의체 구성

대기업에 대해서도 모기업과 협력업체 대표로 구성된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모기업에 협력업체 안전관리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하며 사업주.근로자.협력업체와 함께 "공동위험상황감시단"을 구성하여 작업장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시에는 "작업중지" 권한도 부여토록 하고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시설 투자시 대기업에서 자금지원 또는 금융대출시 보증을 서주도록 하며 모기업에서 협력업체별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되 정기적으로 재해감소 실적을 분석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협력업체는 모기업에서 집중관리토록 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등급심사제"를 도입하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발주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재해다발 사업장 등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중단, 납품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함으로서 협력업체 스스로가 재해예방에 적극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키로 하였다.

3. 삼성전자 협력업체 관리 현황⁴⁾⁵⁾

1) 협력업체 특성

① 규모별 분포

	-49인	50-99	100-299	300-499	500-	계
협성회	26	75	73	12	5	191
일반업체	160	70	61	5	6	301
계	186	145	134	16	11	492
%	38.0	30.0	27.0	3.0	2.0	100.0

* 협성회 : 타 일반업체에 모범이 되는 주력업체들의 모임

② 지방노동관서별 분포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계
업체수	86	329	24	32	15	6	492
%	17.0	67.0	5.0	7.0	3.0	1.0	100.0

③ 협성회 회원사의 업종별 분포

	프레스	사출	회로1	회로2	기구/기타	반도체	계
업체수	25	28	30	33	34	41	191
%	13	15	16	17	18	21	100.0

2) 근로자 특성

① 성별/직급별 분포

직급/성	남(%)	여(%)
경영자	2.0	-
관리감독자	15.0	-
일반직	47.0	15.0
외국인 주부사원	7.0	14.0
계	71.0	29.0

4) 삼성전자 수원사업장(1997). 중소기업 안전초일류 인증제도 활성화방안.

5) 윤순영·전경자·김은미(1997). 삼성전자 협력업체 근로자 건강실태조사(미발표자료).

② 연령별 분포

	-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계
%	1.0	32.0	39.0	19.0	9.0	100.0

③ 건강수준 및 생활양식

구분		수(%)
질병이환수준	없음	85(78.0)
	결핵	3(2.8)
	고혈압	6(5.5)
	당뇨병	3(2.8)
	간질환	1(0.9)
	암	2(1.8)
	신장병	4(3.7)
	기타	5(4.6)
사고경험	없다	90(82.6)
	화상	2(1.8)
	교통사고	9(8.3)
	산업재해	8(7.3)
흡연	피운다	64(58.3)
	안피운다	44(41.7)
음주	안마신다	47(43.8)
	주3회이하	55(51.4)
	주4회이상	5(4.5)
식습관	항상 규칙적	37(34.3)
	가끔 불규칙	63(58.3)
	항상 불규칙	8(7.4)
규칙적 운동	전혀 하지않는다	51(50.5)
	20분동안 땀흘릴정도 운동	20(19.8)
	무릎굽히기, 다리뻗기	20(19.8)
	팔굽혀펴기,아령등	10(9.9)

3) 안전, 환경관리 지원현황

4. 협력업체 보건관리 유형 개발 방안